

휴-口으로부터 칸트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三. 二律背反論에서의第一原因

吾人の數學的知識은直觀形式에依하여確立되고自然科學的知識은悟性形式即範疇에依하여可能케되야批判哲學의問題는解決된세음이지마는 그리치마는此範疇의形式에드러가서法則的關係를갖일수없는部分은解決에빠진 것이다. 그러면그러케빠진것은如何한性質의것인가 다시나아가서大體로存在하는것인가. 칸트는分明히感性은다만受容的作用만을갖인것이어서吾人は外界의對象에依하여感觸된다고말한다여게서이感觸하는그自體는空間時間의形式以外에잇는것인데도칸트는이것을物自體라하였다. 쫓아서또저칸트가말하는悟性體又是理體도기의이와同意義이다 그래서이物自體는超經驗的이어서吾人の認識하는바가아니다. 칸트는이것을認識할수는없으니思惟할수는잇다고말하였다. 如斯히칸트는物自體世界の存在를疑心치아니하였다. 그리하여이概念은實踐哲學의領域에서는極히重要な意義를有하는것이어서自由問題에까지進展하는 것이다. 即칸트는道德哲學의中心을成하는自由라는基本概念을全히이物自體의概念으로부터導出하는 것이다. 思料하면여기에先驗的辯證論을論述한칸트의主旨가存하는 것이다. 그래서先驗辯證論의論述方法은推理的인데推理의極果의 吾人は善通經驗이不及하는概念에到達하는데이것이形而上學의根本問題가되는것이어서이것을理性觀念又是理念이라한다. 此理性觀念은經驗의制約을何等받지안는말하자면經驗의窮極이오無制約的이다. 이觀念에靈魂, 世界, 神의三種의形而上學의問題가잇는데吾人이只今여게서論述하라는것은第二의問題인宇宙論即世界全體에關한理說中에있다. 就中에도主로는第三의二律背反에關係하는 것이다.

그런데吾人の自然科學的知識은世界의全現象에關한因果關係를究明한다. 이러한全現象을溯進하야그窮極原因에이르면世界全體의概念은把握되는 것이다 그러나이世界全體의概念은勿論直觀에서는現顯하지안는것이어서吾人は다만이것을推理할뿐이다. 그리하여第三의二律背反은 世界の生起에는無制約的超因果律의原因이있다(措定)는것과 그러한것이없다(反措定)는것이兩立한다는 것이다. 如斯히第三二律背反의措定은因果律이第一原因或은어떤必然的인것을包含할것

을論하고 反措定은因果律은어데인가에矛盾되는것을論하는 것이다. 그리고또 第三二律背反의措定은因果原理上에基因되어야先天的으로充分히決定된原因없이 는아무것도生起하지안는다고說明한다 此立場으로부터칸트는어떤事變의原因을恒常前行의狀態에서發見한다는見解를가지고있다. 贅어서또어떤境遇에는무엇인가前行의事變에서가아니고그自身에서原因即第一原因은發見된다는相反하는見解를取한다. 그래只今칸트의論證을要約하여보자. 一結果가生起하는데는 모든原因은必然的으로발서存在해있지안으면안된다. 그렇지마는만일각각의原因이그것을說明할前行의原因을要求하고 그러케해야無限에까지遊行하면 如何한事變이라도그것이生起하는때는時間에在한無限系列의完成을豫想하는 것이다. 그러나無限은그本來의性質上決코完成될것이아니다. 거게서만일吾人이그自身을說明할만한前行原因을다시要求치안는最初의事變을想像하지아니하면 그리하여또如何한事變이라도先行하는原因없이는生起하지못한다는理說에對한眞理를拒絕하지아니하면 吾人是矛盾에어찌할수없이빠지고마는 것이다.

이와같이吾人是無限系列의實踐的存在를主張할수가없고 또現象에在한無限回歸에의어떤最後終止의可能性도許할수가없다. 그러나無限其物의問題를論하는 것이吾人の目的是아니다. 그래서칸트는無限回歸는한規則이라고證明한다. 即 그規則은所與의現象의制約的系列에在한回歸를命하는 것이다. 그것은吾人이決코絶對的의無制約者에依하여발서進行하는것을許하지안는곧까지의回歸를命한다고말한다. 如斯히此第三二律背反의解決은또한人間自由의問題와크게交涉되는 것이다. 그래措定이참으로證明하라고目圖하는것은第一로自由의原因과世界의創造者로서의神의存在요 次에는人間自由의可能性이다. 只今人間自由는次節에述하기로하고此處에서는論說치아니한다.

只今反措定에서原因없는第一原因이없다는것과絶對的必然的本質이現象世界에發見되지안는다는것을主張하는것은正當하다. 이것은原因의實際的無限系列이存在하는것을意味하는것은아니고 吾人이아무리遙遠한데까지事變의系列을遡上하드래도決코오히려그前의事變을豫想하지안는事變에니르기는不可能하다는것을意味하는 것이다. 第二類推에서의證明과같이因果法則은一切現象에妥當하는것을承認치안으면안된다. 그러나現象은根據를物自體에둔것과같이뵈이고或은如斯히뵈이지안으면안된다. 그럼으로그것은時間에논날아나지안는것이고贅어서時間에서圖形化하는것같은 因果範疇에는從屬치안는다고것은그自身の有하는感覺되지안는또此岸의이아닌因果律을가질것이다. 그래그것은自由의概念에包含되어있는것을充足식일것이다. 그와같이하야本體的世界에는形而上學이絶對的必然的이라고불오고神學이神이라고불으는特性을有한何物인가가存在할것이다. 그러나그러한存在는因果範疇에의呼訴에依하여는證明되지안는다.

何故인가하면因果範疇는現象에妥當하는것인가답이다. 그럼으로本體的인모든 것을前行하는原因에依하여決定되지안면안된다는것을證明하는것이不可能할 뿐만아니라 또全然意味없는命題가될것이다. 이것前行의原因은時間을豫想하나 그러나時間은本體的의것이아니고現象的의것임으로써다.

그런데여기에第一原因或은絶對的必要的存在가現象世界에잇는가없는가의問題는反措定때미決定되리라는것은어떤點까지는首肯할수있다. 그러치마는이問題를正當하게理解할때에는宗教問題와는何等關係가없는것처럼생각된다. 그리 생각건대吾人이말할수잇는全知의神은時間에서일즉이作用치아니한全世界過程의根據다. 땡어서神에對한因果律은알수잇고서一體로感覺할수는없다. 只今자殘存한問題는神은形而上學的論證우에基因하여야잇는것이아니고道德的論證우에基因하여야잇다는證明과信念이다. 그리하여神에在한信念은世界에在한무슨偉大한叡智와統一을求할境遇에吾人을靈感케하는價値다. 吾人の理性은그러한叡智와統一을探究하도록吾人을覺醒식히는 것이다 그러나이命令은全體로可能的經驗에서는決코實現되지안는다. 땡어서그것은何等證明이아니고探究의方策이오希望이오理想이다. 그럼으로吾人은原因없는第一原因或은現象界에在한必然的本質을定立하는것에依하여滿足하라고企圖하여서는안된다. 上述한것이大體로칸트의第一原因에對한答辯이다. 칸트의論證한神學的關係와칸트의企圖한解決即無限에對한二律背反을一般으로論하는것은吾人을非常히遙遠한彼岸까지運去할것이다. 그래아마吾人에取하여야가장重要한點은第一原因에對한理性의命令은本質的으로現象을證明하기爲한明白한根據에對한命令이오現象系列의最初의原因없는事變에就하여서는아니라는것이다. 吾人은다음에自由의問題에로論展하러한다.

(未了)